

“북 반드시 참가할 것...확실한 지원 하겠다”

광주수영대회 1년 앞두고 첫 방문 FINA 회장 밝혀 “속박·항공 등 제공돼 유엔 제재로 참석 못할 일 없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5일 광주를 첫 방문한 홀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은 “북한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와 FINA의 적극적인 북한 선수단 지원이 결집되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큰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광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의 수영장 등 여러 시설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에 건설된 수영장이 시민에게 수영을 배울 수 있게 하

고 운택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 회장은 이날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난 데 이어 6일에는 여수경기장을 방문하고, 7일에는 조선대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D-1년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D-1년 기념행사에는 AOA, 스트레이키즈, 소향, 포레텔라, 코요태, 하동균, 태진아, 강남, 박서진 등 인기 가수의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 12일~28일 열리며,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는 같은 해 8월 5일~18일 200여개 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영주체육관, 조선대학교,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등에서 각각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방문한 FINA 회장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1년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홀리오 마글리오네(Julio C. Maglione)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은 5일 광주공항 귀빈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를 위해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마글리오네 회장이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광주건축대전 11일 예총회관서 열린다

공모작 심사·수상작 시상

제1회 광주건축대전이 ‘적지적시(適地適時)’라는 주제로 11일부터 4일간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후원하는 광주건축대전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의 한 부문인 건축을 위해 처음으로 분리해 전문적인 행사로 마련했다.

개막일인 11일에는 지난 6월 실시한 광주건축대전 공모 작품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하고 수상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이날 오후부터 전시장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한 ‘일반공모전’의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60점 ▲일반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아이디어공모전’의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30점 등 총 90여점의 입선작을 선보인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주건축대전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축 관련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유현준 흥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한다.

기획전으로 명예건축가전과 지역건축대전교류전도 마련했다. 명예건축가로는 광주사립대학 강의를, 전남대 농대 본관, 무등경기장 등을 설계, 지역 근대건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헌한 고 김한섭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건축대전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울산·대전·전북·대구 지역의 수상작품을 한 곳에 모아 최근 건축작품의 현황을 전달한다.

박흥근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은 “광주건축대전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건축과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 건축과 건설산업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대전 공모는 지난 6월 일반공모전과 아이디어공모전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기성건축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에서 접수한 200여 개 작품 중 2개 부문에 분상 총 20개 작품을 선정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보성군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억 지원

전남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보성군에 긴급 응급복구비 2억 원을 지원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지역에 평균 265mm의 비가 내려 주택 침수 61동, 농경지 침수 6869ha, 하천제방 유실 40개소 11km, 저수지 제방 유실 1개소 등 잠정 집계 6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보성지역은 346mm로 시간당 최대 72mm가 내려 4일 현재까지 54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육군 제31사단 병력을 긴급

지원받아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배수로 토사 제거, 농경지 매립지 토사 제거, 침수마을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보성의 모원저수지 제방 유실, 샌트럴뷰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황 등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복구하도록 독려했다. 또 도 예비비 2억 원을 보성군에 응급복구용으로 긴급 지원토록 5일 특별 지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포스코 ESM와 5700억 투자협약

김영록 지사 첫 성과

울촌산단 이차전지 원료 공장

전남도가 포스코 ESM과의 57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후 첫 성과다.

전남도는 포스코 ESM, 여수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5일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스코 ESM이 여수 울촌산단에 57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 ESM은 울촌산단에 전기자동차·모바일기기 등에 쓰이는 이차

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울촌1산단 16만5287㎡ 부지에 5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4만t 규모의 이차전지 원료 양극재를 생산한다.

포스코 ESM은 1단계로 내년 1200억 원을 들여 연간 6000t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이어 2단계로 202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340여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ESM은 포스코와 휘닉스소재가 공동 출자해 2012년 설립한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차전지는 충전해서 반복구조로 쓸 수 있어 전기자동차나 휴대전화 배터리,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준형 포스코ESM 대표,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이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스코ESM이 울촌제1산단에 57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농기계, 노트북 등에 널리 사용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김

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준형 포스코 ESM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의회 의장 강기석, 광산구의회 의장 배홍석

광주 서구의회는 5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기석(63) 의원을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강 의장은 전체의원 13명 가운데 7명의 지지를 받아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김태영(63) 의원을 선출했다.

강 의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서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도 이날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재선인 배홍석(62·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배 의장은 단독 후보로 나서 17명 가운데 13명의 지지를 얻었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김은단(57·여) 의원이



강기석 의장 배홍석 의장

선출됐다.

배 의장은 “주민 뜻과 동료 의원의 의견을 모아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 집행부와 조화를 이루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광록·최승렬 기자 srchoi@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택.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동해.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선택.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넉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